

미국도서관협회 연례회의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j8612@uwm.edu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6월 말 전북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졸업생 및 학생들로 이루어진 20명의 대표단(단장: 전북대학교 강혜영 교수)과 함께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도서관,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콜롬비아대학교도서관 및 미국국회도서관을 방문하고, 일정의 마지막 코스로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미국도서관탐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하에 마련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여행 중, 미국의 주요도서관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만, 미국도서관협회 연례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에 이 지면을 통해 그 아쉬움을 털어보고자 한다.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설립된 이래, 매년 열리는 연례회의는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연례회의가 그 하나이고, 겨울연례회의(mid-winter annual conference)가 다른 하나이다. 통상 연례회의는 보통 6월 말에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논문발표와 전시회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겨울연례회의는 1월 중순에 개최되며 협회 내부적인 비즈니스를 위주로 진행이 된다. 물론 전시회 및 논문발표 세션들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북미문헌정보교육협의회(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의 연례회의와 맞물려 열리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

회의 개최 도시와 개최 방식의 특징

우선 연례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는데, 미국 대륙 전체를 보았을 때 동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등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개최 도시는 거의 같다. 즉, 지역적 안배를 하여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몇 년의 한 번씩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도시에서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연례회의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보통 연례회의에는 3만명 정도의 유료등록참가자를 비롯하여 그 가족들까지 수만명이 참석을 하게 되므로, 호텔이나 교통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회의를 치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게 된다. 워싱턴DC, 시카고,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자주 개최지가 되는 것은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는 거의 개최되지 않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연례회의를 참가하든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큰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exhibition)를 하고, 이를 연례회의 본부로 정하고, 개회식과 폐회식 등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논문발표 세션들은 주변 호텔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 호텔들은 회의에 즈음하여 미국도서관협회와 계약을 맺어 참가자들에게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동시에 회의실들을 빌려주어 각종 세션을 진행하게 하는데, 가깝다고는 하지만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있으므로, 회의 기간 내내 노선별로 셔틀버스들이 주기적으로 호텔들을 경유하여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가장 인기 많은 전시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개회식

연례회의에는 볼 거리가 많다. 하지만 연례회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전시회일 것이다. 다른 세션에 참가하지 않고, 오직 전시회만 참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등록할 때 전시회 전용 부분만 따로 있을 정도이다. 올해의 경우, 전시회 입장료가 25달러였는데 부지런히 다닌다면 판촉물 및 도서 등을 많이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전시회 규모도 크고 내용도 알차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시회 입장권만 끊더라도 거기에는 명함크기의 카드에 등록된 개인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괜찮은” 기념품을 받으려면 그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긁어서 본인의 정보를 해당 회사에 제공해야 함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양의 이메일을 받고 어리둥절해 할 지 모른다. 매년 전시회의 “화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 한때에는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눈에 많이 띄웠는데, 일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유행을 타는 상품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한 사용자 층을 위한 상품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용 도서관 기기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관련 가구들이나 이색적인 외국서적들만 다루는 서비스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전통적인 도서관출판 섹션에서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겨냥한 아동도서들이 가장 인기가 높다. 여기서는 즉석에서 인기 상품들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들이 직접 싸인회를 갖기도 하여, 때때로 엄청나게 긴 줄을 만들기도 하니,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이런 행사들이 언제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많은 참가자들은 하나 둘 씩 이렇게 책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수십권에 이르므로, 아예 한 데 모아서 전시회장에서 택배로 그들의 직장이나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전시회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걷다보면 금방 지치게 된다. 이럴 때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푸념하기 쉬운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휴식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회 한 가운데에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 자신의 작품을 직접 작가들이 읽어주는 시간도 갖는다. 작가와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공간은 항상 많은 의자들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다.

전시회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바로 개회식인데, 여기에는 매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주된 연사로 나서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장관도 나왔었고, 카트리나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 열린 뉴올리언스 연례회의 때에는 당시 뉴올리언스 시장이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개회식 연설을 했다. 개회식과 아울러 폐회식에도 유명 작가들을 비롯하여 유명 인사들이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폐회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개회식 만큼은 아니다.

다양한 주제의 세션

연례회의에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공식 조직들을 비롯하여 중미도서관협회(CALA: Chinese-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같은 연계조직들까지 여러 가지 세션을 갖고 주제를 정하여 논문 발표 등의 행사를 갖는다. 세션들이 매우 다양해서 처음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허둥지둥 헤매기 일쑤인데, 이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연례회의의 프로그램에 소위 트랙(track)을 중심으로 일련의 세션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즉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세션들을 날짜와 시간별로 연계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전시회에서도 매년 “화두”가 달라지지만, 세션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그 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세션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꽉 차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아주 심한 경우, 몇몇 세션에는 진행자와 발표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도 생기므로, 미리미리 세

션들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기 있는 세션 중에는 OCLC 같은 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그 시상식을 하면서 자사 제품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연례회의에 미리 일반 등록을 한 참가자들에 이메일로 알린 후에 링크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시간대를 잘 정리하면 최신의 정보를 여러 세션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홍보 이메일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례회의에서 세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한 세션 당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식사와 휴식 및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하루에 아주 많아야 3~4 개 정도의 세션을 들을 수 있다. 그러는 중에 친한 친구 등을 만나 세션 바깥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루에 2~3개 세션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세션을 듣고자 한다면 미리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혹 듣고 싶은 세션을 본의 아니게 놓친 경우 연례회의를 중계하는 위키(wiki)를 참조하면 해당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으니, 미리 즐겨찾기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의장 안팎의 이색 풍경들


미국도서관협회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회 및 정치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례회의에서도 종종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전쟁과 독재체제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 충돌이 보이기도 하고, 언뜻 우리의 문화 정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동성애 문제 등이 이슈화되기도 한다. 주제에 따라서는 일반 세션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오히려 회의장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혹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하지는 말자.

연례회의 기간 중 세션 등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저녁에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큰 스크린으로 사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함께 본다던가, 큰 회사들이 스폰서를 자처하고 미국도서관협회의 한 하부 조직이 주최를 하는 무료 카테일파티에 참석해 본다던가 하는 것이다. 2008년 연례회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 저녁에는 디즈니랜드에 속해 있는 먹거리 거리에서 음식점 혹은 술집마다 특수관심 분야 조직별로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관심과 준비하기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연례회의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례회의에서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북카트 댄스 경연 대회(Library

Book Cart Drill Team Championship)이다. 이는 도서관별로 팀을 구성하여 책을 나르는 데에 쓰이는 북카트를 활용하여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주제를 설정하여 춤을 추는 경연대회이다. 주제에 따라 복장을 갖추고 북카트도 최대한 치장을 한다. 이미 예선을 거친 팀들이 결선을 펼치는 것이므로 춤의 수준도 상당하고, 각 팀이 주는 메시지들이 독특하고 흥미만점이므로, 연례회의에 참석한다면 꼭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유튜브(YouTube)에 상당히 많은 비디오 클립들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있는 독자들은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미국도서관협회 연례회의는 미국에서 열리므로 일단 참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비회원인 경우에 일반 등록비가 올해 380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항공료 및 체재비를 계산한다면 선뜻 나설 수 없음을 틀림없다.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다른 회의나 여정을 택하기 보다는, 이 연례회의에 참석해 보기를 감히 추천하는 바이다. 



▲ 미국도서관협회 연례회의 전시회 필자의 문헌정보학과 홍보 부스